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 Merry Christmas

## 성탄의 정신

가장 좋은 성탄 축하는 성탄 정신을 깊이 체득하는 일이다.

첫째, 섬기는 정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누추한 세상에 강림하셨다면 온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극진히 대접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배척하고 푸대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개의치 않으셨다. 그가 원래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생은 섬김으로 시종 한 생애인 것이다.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섬겨주려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주님의 염원인 것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7:12)

둘째, 대속(代贖)의 정신이다. 섬김은 대속의 서곡이며 대속은 섬김의 정점이다.

대속이란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그의 죄를 없이하여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탄에서 그의 죽음까지를 보게 된다. 만일 주님의 섬김이 대속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의 인도주의 자일뿐 구주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여간한 봉사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속 정신까지를 본받아야 한다. 죄인인 이웃을 대속하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웃의 죄를 함께 부끄러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그것이 어찌면 나 자신의 책임일지도 모른다는 책임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곧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대속의 정신이다. 그러므로 삼가 나는 죄와 상관없는 듯한, 죄인인 이웃과 상관인 없는 듯한 태도로 형제에게 돌을 던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8:7)

셋째, 희생의 정신이다. 세상에는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은 생명을 바쳐야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희생이며 주님의 대속성업은 곧 여기에 속한다. 주 예수님의 성탄은 곧 성자의 비강(卑降)이며, 격하이고, 죽음이며 그러기에 희생이다. 이러한 성탄을 맞이하여 가난을 핑계로 구제만을 바라거나 상관이라는 이유로 선물만 기대하거나, 대목이라는 구실로 매상고만 올리려는 행위는 성탄의 정신에 위배된다. 신타클로스를 기다리기보다는 각자의 신타클로스가 되는 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정신에 부합한 일인 것이다.

「주여, 성탄 정신을 생활 속에 구현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중 윤 원로 목사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학교 성탄축하 특별행사 -  
· 25일(화) : 새벽 5시 - 성탄새벽예배  
오전 11시 - 성탄축하감사예배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 오늘 찬양예배 시에 교육부서의 성탄축하 특별행사가 있으며 산타 선물 잔치도 열린다.  
또한 성탄절 당일 25일(화)에는 새벽 5시에 성탄새벽예배를, 오전 11시에는 성탄축하감사예배

를 드리며 성탄 감사헌금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즐거운 성탄절기가 되도록 기도한다.

##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박노철 목사측 항소 기각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 18일(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에서는 박노철 목사의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박노철 목사측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는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순례자 1375호)에 이어 박노철 목사는 더이상 서울교회의 위임목사가 아님을 선고한 것이다.

이 날 판결은  
1. 목사는 무조건 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종신직이나 임기제가 배제되어 있는 직분이 아니므로 지교회 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기제나 재시무를 목적으로 한 신입투표규정 제정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지교회 규정이 총회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 지교회가 자치적으로 채택한 재시무투표제도는 교단헌법에도 위배되지도 않는다.

3. 교회는 일반적인 단체와 달리 헌법상 교인 명부에 있는 교인 모두가 아닌, 회집된 인원으로만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동의회에서 얼마든지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지교회 규정에 따른 재시무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더 이상 해당 지교회 담임목사 지위가 없다 라고 요약된다.

또한 박노철 목사측의 주장에 대해  
1. 안식년규정은 권징을 목적으로 한 신입투표를 금지한 총회헌법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재시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안식년규정은 명칭에 관계없이 서울교회의 법률적 의미의 정관 또는 정관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정관제정도 적법한 공동의회에서 교인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로 볼만한 하자가 없다.

4. 따라서 박노철목사는 유효한 안식년규정에 따라 서울교회의 실질적 담임목사 직무를 시작한 2011.1.1.부터 6년이 지난 2017.1.1.부터 안식년을 갖고 재시무를 위한 신입투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았으므로 안식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

이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기도하였더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이다. 저들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승리의 때까지 기도의 줄을 끊지 말고 계속하여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설명을 3면에 실는다.

## 향존직 은퇴식 / 특별제직회 송구영신(送舊迎新)예배

향존직 은퇴식 · 특별제직회 : 12월 31일(주) 찬양예배 시  
송구영신예배 : 2018년 1월 1일 0시 101호

2018년 마지막 주일인 30일은 각 교회학교 졸업감사예배가 교회학교 별로 있다.

또한 주님 앞에서 평생을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다가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에 정한대로 정년이 되어 은퇴하는 장로와 집사, 권사들의 은퇴식과 장로 안식년제, 성경통독시상식이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찬양예배 후에는 결산을 다루는 특별제직회가 열린다.

2019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송구영신예배가 1월1일 0시, 101호에서 시작된

다. 11시 30분에 모든 성도들이 지난 과오를 회개하는 기도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소등 되었다가 0시정각, 강대상에 촛불이 켜지면 이준용 원로목사의 인도로 시작된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11시 30분 소등이 되기 전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9년 첫 주일인 1월 6일(주)은 신년감사예배로 주일 I·II·III부 예배시 성찬식을 갖는다. 찬양예배 후에 2018년 결산 및 2019년 예산승인을 위해 공동의회로 모인다.



##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채교천·정금희1 양길순·이강전 정복순 한대석 정춘혜  
주일2부안내일동 에스더여전도회 백승갑 김현영  
장창수 송재현·선순례 송인덕·송민섭 제오복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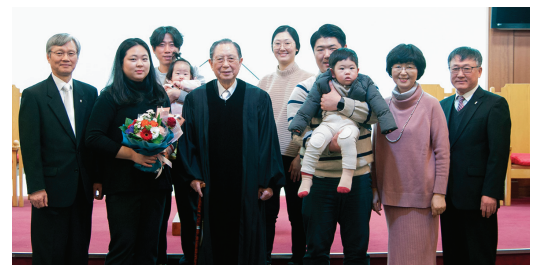
## 1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6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2018년 올해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찬양예배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유아세례 : 길리배, 차시온, 최아인 계 3명  
총 3명



#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승소

## "피고 박노철은 2018.1.1.부터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제 38 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4726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피고, 항소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7 (대치동) 대표자 담임목사 박노철 2. 박노철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2273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① 피고들은 피고 박노철이 2018. 1. 1.부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의 위임목사(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피고 박노철은 2018. 1. 1.부터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 교회는 피고 박노철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고 박노철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 청구: ① 피고들은 피고 박노철이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 ② 피고 박노철은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 교회는 2018. 1. 1.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박노철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기각한다. 예비적으로,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교회는 지난 2016년 초부터 담임목사의 목회와 관련한 교회 분쟁이 시작되었고 가능한 당회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려던 여러 시도들이 무산되어 부득이 그해 5월 성도들께 그동안 제기된 박노철 목사에게 대한 문제점과 당회에서 2/3가 넘는 다수 장로들의 반대경위 등에 대한 자초지종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어 총회재판국을 비롯 교단 내에서의 해결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박노철 목사가 교회 내 안식년제 규정에 따른 안식년 휴무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부득이 사회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 그해 11월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교회정관에 없는 내용은 교단헌법에 따르면 되어서 있는데 교회 내 안식년제 규정은 정관

에 들어있지 않고 별도의 하위규정으로 되어 있어 결국 신임투표로 목사를 사임시킬 수 없다는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극히 형식논리적 이유로 패소함으로써 이후 장기간의 법적소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교단 헌법에는 목사의 정년이 70세까지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목사가 잘하든 못하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쫓아낼 수 없으므로 서울교회처럼 자체 규정으로 임기를 정하거나 재신임투표를 하는 것조차 위법이라는 주장에 서울강남노회나 많은 목사들이 이에 동조하여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래서 이후 2년간 계속 저희는 마치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무법적인 집단으로 호도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노철 목사는, 물론 부메랑처럼 자신의 큰 짐이 되긴 하였지만, 당회에서의 소수 지지장로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회허락도 없이 2017년 5월 서울강남노회의 힘을 빌려 자기들끼리 모인 공동의회에서 15명의 장로를 선출하였고 이후 총회재판국의 권고나 법원의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임직까지 몰래 강행하여 저희는 당회권까지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목사가 60-70여명의 불법영역을 앞세워 강제로 교회당 건물을 점거함으로써 이후 마치 결방살이처럼 힘든 예배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희가 위 안식년제 규정과 관련하여 가처분 재판과 별도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 외부의 중재기관인 기독교화해중재원에 위탁되어 2018년 2월까지 약10개월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지만 박노철 목사가 떠나야 한다는 저희 입장과 어떻게 하여서라도 자리를 지키려는 박노철 목사의 입장이 현저하게 대립되어 결국 사건이 다시 법원으로 돌려져 2018년 5월 첫 본안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조속한 판단을 하여 달라는 저희의 호소가 주효하여 1,2차 변론기일만 거친 후 곧바로 선고 날짜가 잡혀졌으며 1심법원은 앞서 가처분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로 지교회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그 내용이 정관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할 내용이면 그 명칭형식에 상관없이 총회헌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정관의 일부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8년 6월 14일 위 안식년규정에 따른 재신임투표를 받지 않은 박노철 목사는 더 이상 서울교회 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박노철 목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상태에서 저희는 위 1심 본안판결을 근거로 박노철 목사에게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난 8월14일 모든 심리가 종결되었지만 아직 그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월 13일 저희가 승소한 1심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고 역시 항소심재판부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식하였는지 그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18일 판결선고를 하였는데 역시 앞서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박노철 목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감격적인 판결을 하여 준 것입니다.

물론 박노철 목사 측은 위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와는 달리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이 정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최초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정관변경에 필요한 전체 교인명부상 교인들의 2/3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까지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신임투표를 규정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헌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나아가 종교단체인 교회로서는 교인들의 탈퇴여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일반 사회단체처럼 교인명부를 실질에 완전하게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특수성 때문에 통상 회집된 교인들로만 개회가 가능한 공동의회에서 중요한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정관의 개정 역시 이 공동의회에서의 결의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박노철 목사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명쾌한 판결을 하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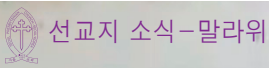
저희는 18년 전 이곳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 입당하였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상처난 예배당을 다시 보수하고 진정한 재임당을 해야 합니다.

혹시 첫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고 입당 후에야 교회에 동참하여 빛진 자의 마음으로 계시던 성도님들도 새예배당 건축의 경험과 입당의 축복된 자리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회 신앙의 선배들로서 저희 자녀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건강하고 자랑스런 이 시대의 모범적인 교회를 남겨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곧 쓰여질 서울교회 30년 사에 교회의 가장 어려운 시대에 교회회복을 위해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오는 믿음의 다음세대들에게 길이길이 기억될, 이 어려운 때 쓰러져가는 서울교회를 올곧게 지켜 주신 한분 한분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기도를 통한 기적의 선교사역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심을 입은 형제 자매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 1. 상설 프로그램

### ① 교도소 선교 사역

재소자들과 교도관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개인적인 영성 개발을 위한 도움 뿐 아니라 매일 전원이 참석하는 새벽기도회와 주일대예배, 재소자 자체적으로 드리는 주일저녁예배와 수요저녁예배, 주중성경공부, 출소예정자 대상 준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소자 전원이 출석하는 새벽기도회마다 몇가지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복음화, 탄압받고 있는 성도들, 복역 문제로 위기에 처한 한국을 위한 기도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덧붙여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도래하는 기도제목도 포함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 ② 어린이 급식 사역

총 21개 초등학교와 160여개 유아원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분이 고루 섞인 한끼의 식사를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은 하루도 한끼도 빠짐 없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를 만드는 공장은 남부의 마칸디 교도소 영내 공장중부의 카송구 교도소 공장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장이 정상가동하면 도합 400,000명의 어린이를 먹일 수 있는 영양식 재료를 제조할 수 있으나 현재는 단지 4만여명의 어린이에게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원어나더 사역

지게 보급 사역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이제는 그 자체로 체계를 갖춘 원어나더 (One Another) 사역이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성도

나 교회가 직접 선교지에 와서 전도와 봉사의 사역을 할 수 있겠으나 물질적으로 곤핍한 말라위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들을 대신하여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 그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말라위 교회에 보냄으로 서로 유익되게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말라위 시골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은 다소간의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들의 노동 봉사를 통해 교회 주변의 노약자, 장애인들에게 식수가 공급되고 빨래와 목욕 및 심지어 밭농사까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④ 방송선교

2017년 4월부터 전국에 방송망을 가진 트랜스월드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매 주일 오후 4시에 '한국 부인이 보내온 편지'라는 타이틀로 복음의 메세지가 말라위 토착 언어로 전국에 퍼집니다. 믿음생활에 깨달음과 활기를 주고 비록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이를 가로지르는 복음의 능력으로 날로 청취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감을 전하는자들의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 ⑤ 성경학교

한의사이신 이윤희 선교사님께서 의료진료와 더불어 5년 전부터 마칸디 인근 지역 네 군데에 주말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척하셔서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각각 거의 백여명의 어린이들이 마칸디 교도소에서 제조된 치콘디팔라도 즐기며 성경말씀도 배우는 사역이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 ⑥ 의료선교

2009년 이상산 선교사가 말라리아로 소천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마칸디 예수진료소는 한국의 굿피플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구호기관의 주도하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1,000여명의 환자들이 무료로 진찰을 받고 약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가 제 때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병이기에 진료소가 개원한 이래 이 지역에서 말라리아로 숨진 사람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진료소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 2. 특별 프로그램

### ① 이동진료 사역

지난 10년간 한 두해를 제외하고 매년 방문하여 의료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오지를 주로 찾아 진료 사역을 하시는 두분의 캐나다 간호사분이 계십니다. 치유와 전도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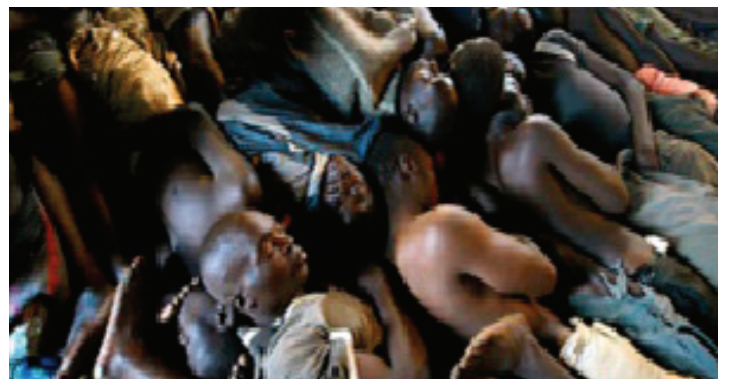
### ② 유도·태권도 사역

2016년부터 말라위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은택 사범(유도)은 체계 있어 가장 든든한 젊은 동역자입니다. 작년에는 신규교도관 400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무술기도를 하면서 말라위 교정국의 정식 지도교사가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이나 교정공무원들이 위급 사태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필요 이상의 총기사용이나 폭력제압을 막을 수 있어 가까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어느날 새벽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나가려는데 재소자 대표가 장내를 정리하더니 한마디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모두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때때로 실망을 끼쳐드리고 잘못을 저지름을 부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5일 매일 똑같은 음식을 투정없이 먹고,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다가 새벽예배시간에 한 명도 투덜대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는 재소자들을 보며 늘 미안한 마음인데 제게 도리어 용서를 구하다니요. 성령님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음을 보며 주님께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교회 여러분, 부디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 힘을 얻어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선교사 올림





# 성탄절 저녁에 드리는 가족예배

## 예 배 순 서

예배를 드리는 기도 .....가족 중 어른  
신앙고백..... 사도신경.....다 함 께  
함께 부르는 찬송 .....108장(통일 113장)..... 다 함 께  
교 독 문.....다 함 께

- 인도자 :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외아들을 보내 주셨으니
- 가 족 :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인도자 :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 가 족 :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 인도자 : 오늘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나셨다.
- 가 족 : 그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 인도자 : 너희는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 가 족 : 이것이 바로 그 분을 알아보는 표적입니다.
- 인도자 :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 가 족 : 땅에서는 그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입니다.

감사기도 .....다 함 께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시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을 알게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오신 주님! 오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구유보다 더 추한 우리의 가슴 속에 오시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가족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 .....123장(통일 123장) .....다 함 께  
말씀.....마가복음 10:45..... 가족 중 어린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탄절 메시지 .....성탄의 신비.....가족 중 어른  
주기도 .....다 함 께

## 성탄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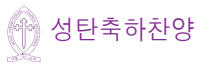
인간이 신이 되어 보겠다는 것이 재래종교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성탄은 인간의 사고와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고 깊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의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은 재래종교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에 성탄이 지닌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도덕이요, 인간이 신을 받드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成肉身)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깊고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은 성탄이 지닌 더욱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황송한 일인데 사람의 종까지 되셨고 인간을 위한 제물(대속물)이 되신 것이야말로 몸돌 바를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신비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구체화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신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을 뿐 아니라 성탄의 신비를 우리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높아지고 섬김받을 줄만 알았지 낮아지고 섬김 줄 모르면 성탄의 신비를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기는 하되 성탄의 문외한으로 남지 말고 성탄의 신비를 안고 생활속에 나타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 아기 예수님께 영광을!



### 이계홍 장로(교육위원장)

낮고 천한 인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오신 주님! 죄와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에 용서와 화목으로 오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요 임마누엘 되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차고 꿈이 가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을 모아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성탄절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으니, 성도님들은 모두 오셔서 예수님 생신을 축하해주시시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 보세요. 그 특별한 선물 보따리를 믿음의 눈으로 풀어보고,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나누어 보세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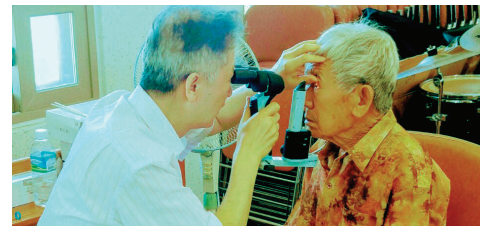
죄인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외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널리 전합시다!

## 의료선교회 총회

12월 29일(토) 오후 5시

의료선교회(회장 : 정현구 집사) 총회가 12월 29일(토) 오후 5시 104호에서 모인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동정

- 전시 : 13교구 고선옥 권사 부스 (1층 A홀 34 피카소화랑)  
13교구 김정미 권사 부스 (1층 A홀 46 헤미 갤러리)  
018 서울아트쇼 12.21(금) pm3:00 ~25(화) 삼성동 코엑스

- 금주의 식사 : 치킨데리아까 조림  
고기성 집사 박분옥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 성탄의 기쁨

## 오! 거룩한 밤

멀고 먼 나라..  
달빛 머금은  
적막하고 고요한밤.  
죽은 인생 살리려 낮고 천한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구원의 길 열고자  
휘장을 찢어  
하늘과 땅을 가르시어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며..  
포로 된 자들에게 자유를..  
멀시, 천대, 고통당한 이들에  
사랑과 평화 주시기 위해  
하늘보좌 떠나오신 예수님!

십자가 가운데에서  
상처로 얼룩진  
인생의 허물지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로  
악한 생명의 씨를 짓누르시며  
믿음으로 천국을 약속키 위해...  
허무와 방황, 절망의 길목에서  
생명수 샘물을 주사  
피어나는 장미처럼  
소망의 꽃 활짝 피어  
영생으로 인도하려  
진리로 오신  
오 거룩한 성탄의 밤...

한상준 집사(9교구)

###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2월23일	주일	약 1-5		히 7-13	
12월24일	월	벧전 1-5		약 1-5	
12월25일	화	벧후 1-3		벧전 1-5, 벧후 1-3	
12월26일	수	요일 1-5		요일 1-5, 요이, 요삼, 유	
12월27일	목	요이, 요삼, 유		계 1-10	
12월28일	금	계 1-7		계 11-22	
12월29일	토	계 8-13			
12월30일	주일	계 14-17			
12월31일	월	계 18-22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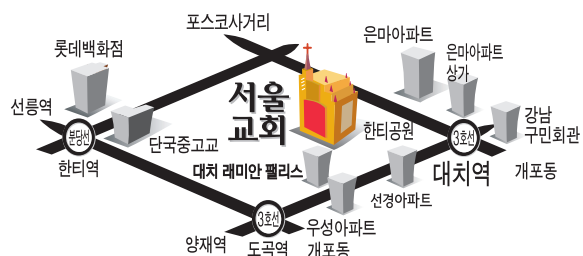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2. 우리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도록
3. 나라의 평안과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요일예배	II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